

농산물 유통혁신...150만 시민 '안전 먹거리' 제공

농협 광주지역본부 김일수 본부장



광주는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지역 농업인들은 거친 농사일에도 도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고 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를 비롯해 광주지역 전 농협은 농업인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의 전량 판매와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판매농협 구현'을 사명감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쉬지 않고 농업인과 호흡하며 농협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김일수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변화에 모든 임직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장중심의 경영으로 조직역량 강화와 농산물 유통혁신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 판매농협 구현=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그동안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광주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있는 생산지이자 소비지로서 150만의 광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산물 판매의 중요 거점 도시다. 광주지역 도시농협은 판매농협으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농협 광주본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농산물을 자가 결정으로 판매하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업인들의 판매처로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매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 브랜드인 '빛찬들' 농산물 이미지 향상과 함께 연합사업단 참여 농협과 품목 확대로 가격 경쟁력 및 농산물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으로, 산지와 소비지, 지역농협과 농협경제지주의 농산물 유통계열화를 확대하고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주 우수농산물의 해외 수출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 나가는 등 농협이 농산물 판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시금융점포 내 소규모 농산물 판매장과 주민센터 내 유·무인 로컬푸드점 개설, 매주 금요일 광주 농축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개설 등 광주시민들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판매하는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매주 금요일 수완동주민센터에서 여는 금요일직거래장터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광주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생산지이자 소비지로서 농산물 판매의 중요 거점도시다. 농협 광주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일수 본부장은 "농업인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을 펼쳐 나갈 생각"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매월 월급제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광주시와 협력해 광주 관내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비 직파재배 확대와 직파기·균형기 보급과 개량블록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인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노동력 절감에 힘쓰는 것은 물론,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영세·고령 농가에 대한 사회봉사인력 우선지원 방안과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으로 부족한 농가 인력지원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인생의 제 2막을 준비하는 예비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귀농동호회를 모집해 귀농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영농기술을 지원하는 등 신규 농업인 증대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도 펼치는 등 농업인 구감소에 대응한 귀농사업도 펼칠 생각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농협=농업인, 농업단체, 광주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농협 본연의 임무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노력하겠다는 신년 계획도 밝혔다.

법 농협 광주지역본부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사랑의 1004운동'은 그동안 임직원 기부와 성금으로 총 4억5000만원을 모아 광주지역 난치성질환자의 치료비와 자활을 돕기 위해 549명에게 도움을 손길을 전했다. 사랑의 1004운동은 매월 1004만원

의 성금이 모이면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농협 광주본부의 행복나눔 운동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이민여성 1대 1 맞춤형 교육, 한국어와 이해과정, 이민가족 모국방문을 위한 가족 항공권 및 체재비 지원 등 광주지역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이웃으로 함께할 수 있는 지원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령농업인의 다양한 고충을 접수받아 생활불편 해소, 가전·주택수리,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농업인행복콜센터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돌봄 대상자는 도움이 필요하면 돌봄 도우미를 신청하고 돌봄 도우미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각종 생활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 '맞춤형 종합복지 서비스'다. 농협 광주본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냉해,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시 농업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대책상황실을 상설 운영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해 농업재해와 가축전염 발생시 신속한 지원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가 4년간 농협의 새 일꾼을 뽑는 축제의 날이자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선거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일수 본부장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깨어 있는 농협인', '활짝 웃는 농업인', '함께하는 국민'을 핵심가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농업인을 받들고 소비자와 고객이 믿고 찾는, 신뢰 받는 농협 광주본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현장중심 경영·조직역량 강화
농업인 행복한 '국민농협' 치중

생산·소비 직결 '판매농협' 구현
광주 브랜드 '빛찬들' 이미지 제고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브랜드 '빛찬들'의 농산물 이미지를 높이고 품목도 확대하는 등 가격 경쟁력과 농산물 판매를 향상시켜나갈 예정이다.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